



김지석 작 '세 그루'

광주극장 미술장터



조근호 작 '산빛 피는 날 1'

86년 역사의 광주극장이 아트마켓 공간으로 변신한다.

지난해 광주 양림동 '10년 후 그라운드' 등에서 열린 '작가 미술장터 -New wave of local arts-광주'를 기획했던, 김상연·정철호 작가가 올해 광주극장에서 다시 작가 장터를 꾸린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작가 미술장터' 올해 행사에는 모두 57개 팀이 지원했으며 이 중 13개팀이 선정돼 서울, 광주 등 9개 도시에서 13개 마켓이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 이후 변화된 예술 생태계에 대한 고민과 질문으로 '로컬'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집중했던 두 작가는 올해 '로컬아트 광주'라는 타이틀로 '광주'의 지역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 행사를 기획했다.

기존 갤러리 대신, 광주를 가장 잘 상징할 수 있는 공간을 탐색한 이들은 '광주극장'에 주목했다. 전국의 유일한 단관극장인 광주극장은 시민들에게 아주 특별한 공간이고, 단순히 영화 상영을 넘어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등 각종 전시회, 음악회 등이 열리기도 하는 복합문화공간 역할도 하고 있다.

김상연 작가는 "오래전부터 고민해왔던 로컬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탐색해보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장소'에도 신경을 썼다"며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미술과 영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로컬아트 광주'전은 70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아트마켓을 비롯해 퍼포먼스, 콜렉터 투어, 작가와 미술 관계자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전시는 광주극장 1층을 비롯해 2층과 3층 공간에서 열리며 퍼포먼스는 극장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전시에는 허임석·조근호·이아남·김승택·박수만·신양호·전현숙·이매라·허임석 등 중견작가를 비롯해

'로컬아트 광주' 20~25일 70명 250점 전시, 콜렉터투어 김광철·박경화 등 퍼포먼스도



광주극장

고마음·김연호·박성안·설박·성혜림·이아내·윤세영·윤준영·정승원·하루K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년작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또 최근 5년간 지역 미술 대학 졸업생 도록 등을 꼼꼼히 살펴 제 막 대학을 졸업한 작가들에게도 전시 기회를 제

공, 진입 장벽을 낮췄다.

공에 작품을 포함해 모두 250여점이 전시되는 이번 장터에서 판매되는 작품 가격은 10만원부터 200만원선으로 책정해 초보 콜렉터들도 쉽게 작품 구입을 할 수 있도록했다.

20일 오후 7시에는 광주극장 상영관 무대에서 코로나로 지친 관람객들을 치유하는 퍼포먼스를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한다. 퍼포먼스 아티스트 김광철의 '아트시드 Art Seeds', 박경화의 '다시 맨발'을 만날 수 있으며 관람객은 현장접수 받는다. 이번 행사는 좀처럼 무대에 설 기회를 갖지 못하는 퍼포먼스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는 프로젝트라는 데도 의미가 있다.

같은 날(오후 2시~4시) 펼쳐지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콜렉터 투어'는 김정삼 독립큐레이터(전 전남도립미술관 학예실장)와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며 참여작가 작품에 대한 소개와 작품 구입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밖에 22일(오후 2시~4시 인터네트 예약) 열리는 '로컬아트 피칭데이'는 미술시장 관계자와 작가들이 광주 미술과 작품에 대한 담론을 나누는 자리로 한창운 광주미로센터장과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분관장이 진행자로 나서 전시 참여작가들과 대화를 이어간다.

정철호 작가는 "대중이 갤러리보다는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극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마켓은 색다른 시도도, 환경을 고려한 전시 포맷 등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코로나로 행사들이 축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가들과 관람객, 콜렉터가 만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람시간 오전 11시~오후 7시. 홈페이지(www.localartsgwangju.com) 참고. 문의 010-6672-063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고전문학이 들리는 콘서트'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2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고전 문학을 클래식 음악으로 만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대표김유정·이하 광주여성필)는 오는 22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제60회 정기연주회 '문학이 들리는 콘서트'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2021 광주시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작품으로 여름방학기간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공연에서는 세익스피어·괴테·볼테르 등의 고전문학을 리스트·포레·벤스타인 등 세계적인 작곡가들의 음악으로 들려준다.

마테를링크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를 포레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모음곡으로 선보이며, 윌터스콧 경의 '레머머의 신부'는 도니체티의 오페라 '람메르무르의 루치아' 중 '광란의 아리아'를 통해 들려준다. 또 볼테르

의 '칸디드'는 벤스타인 오페라 '칸디드' 중 '화려하고 즐겁게'로 선보이며 괴테의 '파우스트'는 리스트 '메피스토 왈츠 1번'과 함께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은 차이코프스키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서곡'으로 들려준다.

객원지휘는 지휘자 박승우(K아트 예술감독)가 맡았으며 협연자로 소프라노 박지현(성신여자대학교 교수)이 무대에 올라 광주여성필과 호흡을 맞춘다.

한편 광주여성필은 1999년 창단 후 22년 동안 500여 회의 공연을 해왔으며 다문화음악학교 운영, 다문화M오케스트라 육성 등 사회공헌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과 2019년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예약 필수. 무료 관람. 문의 010-5811-616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심청, 세상의 별이되다'

창작국악단도드리, 21~22일 곡성·29일 순천시 공연

효녀 심청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이 곡성과 순천에서 펼쳐진다.

(사)창작국악단도드리 전남지부(이사장 김재섭·이하 도드리)가 전남도와 전남문화재단의 2021년도 공연예술창작 지원사업에 선정돼 섬진강아리랑IV-창작 심청전 '심청, 세상의 별이되다'를 선보인다. 공연은 오는 21일 오후 3시 곡성 도드리 국악캠프장, 22일 오후 3시 곡성레저문화센터 동아아트를, 29일 오후 5시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효의 상징이자 신분상승을 통해 민중의 희망을 노래해 온 '심청전'을 재해석해 심청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황후가 되어도 눈 먼 아버지를 찾아 나선 효심을 현대적으로 풀어내 선보인다.

제1막 '생희사비, 곡성에 울리다'는 심청이 태어나기까지 과정과 심봉사 부인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곡성 죽동농악의 '길놀이', 국악관현악곡 '섬진강', 창작국악가요 '꽃상여' 등을 들려준다. 제2막 '출천지효, 하늘도 땅도 울다'는 심청이 공양미 삼백석에 팔려가는 내용으로 창작국악가요 '심청별곡', '이별', 국악관현악 무용곡 '죽향풍월', 합창·범피중류 중 '벚꽃' 등으로 구성됐다.

마지막 제3막 '심청지효, 세상의 별이되다'는 황후가 된 심청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타악퍼포먼스 '무령지곡의 울림', 창작곡 '세상의 별이되다', 창작국악가요 '죽제' 등을 들려준다.

이날 공연에는 창작국악단 도드리 단원과 함께 전남무형문화재 제35호 곡성죽동농악, 남도소리전단체 소리정 단원 등 총 32명의 출연진이 무대에 오른다. 문의 010-4820-995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청년이 기획한 청년작가들 아트마켓 '미로마켓 온앤오프'

18일까지 전일빌딩 245

'미로마켓 온앤오프'는 청년 큐레이터가 기획자로 참여해 청년작가를 초대하는 아트마켓이다. 지역 신진·청년 큐레이터와 작가에게 작품 유통 플랫폼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미술 작품 구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2021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프로그램 '연결된 마음들'의 사업 중 하나다. '미로마켓 온앤오프'는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술품을 구매하고 소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관선재 갤러리 등에서 모두 3차례 전시회가 열렸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관람객을 만났다. '크고 아름다운 깊이'를 주제로 청년 큐레이터 그룹 TB Collective(나여진, 양다솔)가 기획한 3차 마켓에는 청년작가 7인(강지수·김미지·김소희·김유민·손지원·이기효·이소)의 작품 30점이 출품됐고 모두 9점이 판매됐다.

'미로마켓 온앤오프' 네 번째 아트마켓이 오는 18일까지 전일빌딩 245 3층 시민갤러리에서 열리고



'미로마켓 온앤오프' 4차 전시가 18일까지 전일빌딩 245에서 열린다. 청년작가들이 참여하는 아트마켓은 오프라인으로도 진행된다.

있다. 청년 큐레이터 최영서가 기획한 이번 '미로마켓 온앤오프'는 'x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김민경·오기라·오성현·이소현·하도훈 등 청년작가 5인을 소개한다. 이들은 미지수 'x'로 칭해지는

수많은 억압과 강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작품 활동을 지속해나가고 있는 신진 작가들이다.

'미로마켓 온앤오프'는 오는 11월까지 3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